

삼성SDI, OLED 출하 3000만대 돌파

2002년 8월 양산 이후 3년2개월만에 ... 파이오니어 · 라이트D 추월

삼성SDI는 수동형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누적 출하량이 세계 최초로 3000만대를 넘어섰다고 10월11일 발표했다.

삼성SDI는 경쟁기업인 일본 파이오니어, 타이완 라이트디스플레이가 2000년, 2001년 수동형 OLED 양산을 개시해 현재까지 누적 출하량이 2100만대, 2500만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탁월한 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삼성SDI는 2002년 8월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특히, 2005년 하반기 들어 휴대폰용 OLED 수요가 폭증하면서 2005년 2월 누적 출하량 2000만대 기록을 세운 지 8개월만에 1000만대를 추가했다.

삼성SDI는 2003년 7월 100만대, 2004년 4월 1000만대의 누적 출하량을 기록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양산 첫 해인 2002년 24만대, 2003년 500만대, 2004년 1390만대의 출하량을 기록했다. 삼성SDI는 현재 부산공장에 월 350만대의 OLED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05년 들어서는 휴대폰용 OLED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월평균 생산·판매량이 1/4분기 73만대에서 2/4분기에는 130만개까지 급증했으며 하반기에도 월평균 150만~200만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SDI는 최초의 3000만대 돌파 비결로 세계 최고 증착(蒸着)기술, 고성능 휴대폰용 OLED 수요 급증, 공격적 마케팅과 탄탄한 영업망,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한 품질 등을 꼽았다.

삼성SDI는 2004년 휴대폰용 OLED 세계시장 점유율 45%로 처음 1위를 차지했으며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점유율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수동형 OLED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보다 선명한 화면 구현 및 초박형 디자인이 가능한 AM(능동형) OLED 신제품 개발과 생산체제 구축작업도 본격화해 2006년 능동형 OLED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10/12>